법명 스님 "종단 발전 위해 수행가풍 확립"

관음종 6월 24일 신임 총무원장 임명식 개최

노덕현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성사서 종도 운집 하에 봉행
7월 14일 취임식 및 회견 예정
법성보살 95세 탄신다례 열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법명)은 6월 24일 창녕 법성사 대광명전에서 총무원장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임명받은 신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총무원장 임명은 법성보살 은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바른 믿음의 수행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큰스님을 잘 모시면서 새로운 종단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법명 스님은 특히 수행 종단으로 가풍 확립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최근 종단협 한 · 베트남 수교 행사 동참으로 종단 발전 방안 수립에 막 나선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 하심으로 나서겠다. 종단 안팎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음종 신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978년 3월 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득도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낙산 묘각사 낙가선원에서 6안거를 성만했으며, 1979년 12월 백상 경조 스님을 전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1년부터 옥천 백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스님은 1989년 10월 10일 영산당 홍파 스님에게 건당했으며, 이후 1994년 1월 10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교무부장, 2000년 1월 28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중앙종회의원, 2005년 5월 26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법성사 주지, 2006년 1월 20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부원장, 2008년 1월 18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포교원장, 2011년 1월 13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중앙종회의장, 2018년 12월 18일 관음종복지재단 이사장, 2021년 8월 3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으로 취임해 그동안 관음종 안팎의 대소사를 관장했다.

스님은 '깨달음 총론' 발간도 총괄했으며, 저서로는 수필집 〈바보산승 이야기〉(2014년 나무)가 있다. 또 대한민국 한빛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교정봉사, 자랑스런한국인대상 교정봉사 등을 수상했다.

스님은 "스님과 대중들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 아래서 믿고 협력하여 종단의 발전에 함께 나서자"고 발원하며 "법성 보살의 뜻을 받들어 수행의 미진한 부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종정 홍파 스님(오른쪽)이 법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을 비롯해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법주사 무상 스님, 관음종 교육원장 도선 스님, 호법원장 경원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주 불명사 도각 스님, 관음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혜정 스님 등 관음종 소임자 스님과 각 사찰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법무부 대전교도소 사회복지 및 교정협의회 관계자, 최윤섭 대한불교관음종 신도회장, 이경자 법성사 신도회장, 법성사 수경화 보살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임명식은 법성보살 전 삼배와 비로자나불 십신불 봉독, 상축 등으로 진행됐다. 헌다, 헌향, 헌화와 함께 법성보살 생전육성 청취 순으로 이어졌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총무원장 법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법명 스님은 관음종 종회의장도 맡고 있다. 수행의 에너지를 모아 종단이 화합하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법성보살 설법집에 비로자나 법신과 법음으로 모두가 청정하고 걸림이 없게 된다고 했다. 내 마음에 그릇됨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걸림이 없고 계를 지키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성보살 탄신 95주년 다례법회도 진행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6월 2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 20만 달러를 전달하고, 난민 안녕을 기원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20만 달러 전달

상월결사, 6월 27일 주한 대사에
본지 협업, 8월 12일까지 캠페인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구호 지원금을 전달하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6월 27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전쟁 난민을 위한 기부금 20만 달러를 전달했다. 한화 2억 6000만원 상당으로 조계종과 상월선원이 주최하고 아름다운동행이 본지와 주관해 3월 14일부터 진행한 긴급 모연 캠페인에서 조성된 기금 중 일부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하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우리나라도 잦은 전쟁으로 고통 받은 경험이 있기에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성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부대중이 모금에 동참했다"면서 "한국불교와 상월결사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난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자승 스님과 원명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드미트로 대사는 "전쟁 이후 한국에서 접한 경험들로 한국 국민들 마음이 우크라니아 국민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달식 전, 상월결사와 인류평화를 위한 방생순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드미트로 대사는 "정진과 기도는 세상의 평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감동의 뜻도 전했다. 그러면서 합장 반배하며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달식 후에는 봉은사에서 준비한 사찰 음식으로 공양하며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기도 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본지와 협업, 8월 12일까지 긴급 모연 캠페인을 진행한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전국비구니회, 2년만에 전국 운영위원 한자리에

전국운영위 19지회 130여명
6월 27~28일 경주서 워크숍
역량 · 원력 모으는 소통의 장



전국비구니회는 6월 27~28일 경주 황룡원에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6월 27~28일 경주 황룡원에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19개 지회 위원들이 모두 모여 대면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 28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운영위원회는 그간 코로나팬데믹으로 모든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한 바 있다.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그동안 전국 19지회 소속의 130명 운영위원회는 전국비구니회의 원만 운영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이어왔다"며 "그럼에도 오늘 워크숍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2019년 11월 운영을 시작한지 2년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운영위원 스님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모임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운영위원회는 본 워크숍 이후 남은 운영기한인 2023년 11월까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앞둔 주요행사들의 원만추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12대 집행부가 소임을 원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운영위원 스님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향후 1여년간 국내외적인 중요한 행사들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올 9월 15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비구니종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데 이어, 10월 18일 회관 20주년 기념행사, 2023년 6월 23~29일 세계여성불자대회 '샤카디타 한국대회'를, 9월에는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치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러 주제의 강좌도 함께 진행됐다.

문광 스님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불교와 수행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데 이어, 김태균 원장이 '세계화시대 한국 비구니스님에게 요구되는 패러다임 이해'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이 '운영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국운영위원과 함께하는 제21차 수행결사에서는 불국사 학장 덕민 스님의 법문도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칠순 불자 부부, 승려복지 500만원 기부

6월 21일, 사무국 직접 방문
"노후 걱정 없는 수행" 발원

불자 부부가 칠순을 앞두고 승려복지 기금을 후원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승려복지회 사무국에 한 노부부가 방문했다. 이들은 7월, 칠순을 맞은 조창희 · 김옥배 불자 부부.

이날 500만 원을 후원한 부부는 "칠순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뜻 깊은 일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공양을 통해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부는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큰 호응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10대 사업 중 하나인 불교 요양병원 · 요양원 불사도 하루빨리 이루어져 노환이나 병고로 사찰 내 돌봄이 어려운 스님들을 모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금을 전달한 김옥배 불자는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신도로, 불자로서 신행생활과 포교사로서 포교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부터는 매월 1만 800원씩 승보공양도 후원하며 스님들을 외호하는 재가불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